

Economy Brief

어정쩡한 워시 의장, 불확실성만 키웠다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7월 FOMC 회의 결과, 소수(3명)의 금리인상 주장이 나왔지만 어정쩡한 케빈 워시의장 입장을 고려할 때 연내 금리인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함. 오히려 금리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만 커짐

이전 파월의장 체제와 달리 케빈 워시 의장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됨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이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어 유가의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어 금융시장내에서 케빈 워시 의장 바라보기보다 유가 바라보기 분위기가 한층 강화될 것임

7월 FOMC 결과, 불확실성만 커졌다

7월 FOMC 회의 결과는 케빈 워시의장 체제의 미 연준이 달라졌음을 다시 확인시켜준 회의였다. FOMC회의 성명서는 6월 성명서와 변화가 없었고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도 논점을 피하는 다소는 두리뭉실했다. 다만, 6월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6월 FOMC와 달리 이번에는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위원이 3명이 나왔다. 소수의 금리인상 주장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내 연내 금리인상 우려가 더욱 커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두리뭉실한 케빈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연내 금리인상이 단행될지는 의문시된다. 관련하여 케빈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채 금리 상승이 금융환경을 긴축시켰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자체 판단에 의해 금융환경이 긴축됐기 때문에 연준이 나설 여지는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과 관련된 불확실성 리스크만 커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미국 국채 금리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미 연준의 금리정책을 반영하는 2년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한 반면에 10년 및 30년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30년 국채금리는 5.2%를 소폭 상회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채금리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달러화와 금 가격도 7월 FOMC회의 결과가 매파적 동결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안도하는 흐름을 보였다. 달러화는 약세를, 금 가격은 1%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다.

어찌보면 금융시장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 즉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단발성 금리인상일지라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금융시장과 연준 내부의 목소리를 케빈 워시 의장은 애써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다. 케빈 워시 의장의 누차 반복하는 연준의 통화정책과 관련된 테스트포스 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까지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 한 케빈 워시 의장은 금리인상 압력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현실적으로도 미 연준이 9월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중간선두 직전에 개최되는 10월 FOMC회의(27~28일)에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물가가 크게 요동치지 않는 한 최소 12월로 금리인상 시점이 지연될 여지가 있다.

문제는 미 연준의 금리관련 정책 불확실성 속에 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할 수 있음이다.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으로 유가 변동성만 확대되고 있음은 물가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국채 금리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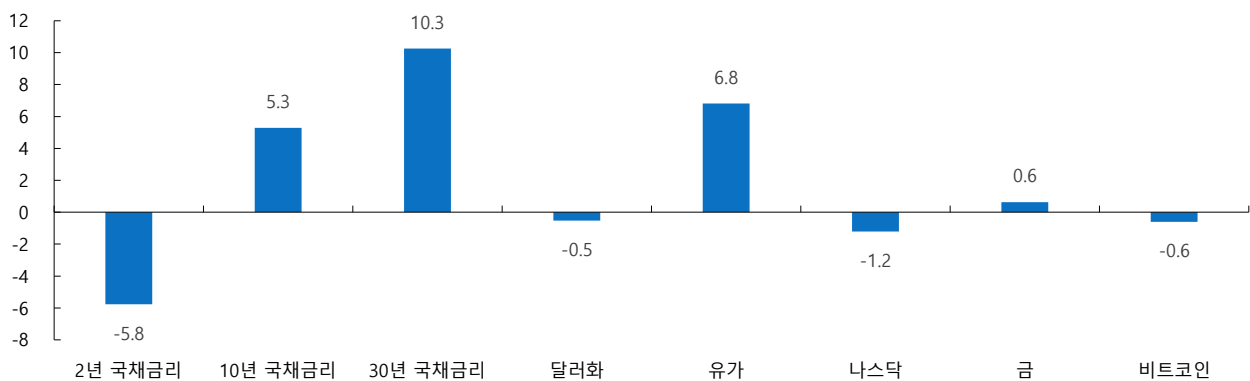
케빈 워시 의장 바라보기 보다 유가 바라보기

두차례의 FOMC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종합해보면 통화정책측면에서 케빈 워시 의장은 어정정한 스탠스를 유지할 공산이 높아 보인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미 연준의 물가 목표치 달성을 강하게 강조했지만 물가에 대해 다소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매파적 입장을 취하면서 비둘기적 모습이 확인되었다. 또한 케빈 워시 의장이 “시장을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 추구 아니다”라고 발언한 대목 역시 케빈 워시 의장은 어정정한 통화정책 스탠스가 유지되는 동시에 불확실성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전 파월의장 체제와 달리 케빈 워시 의장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 등은 이란 리스크에 따른 유가 흐름에 더욱 연동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이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어 유가의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음이다.** 국채시장 등 금융시장내에서 케빈 워시 의장 바라보기보다 유가 바라보기 분위기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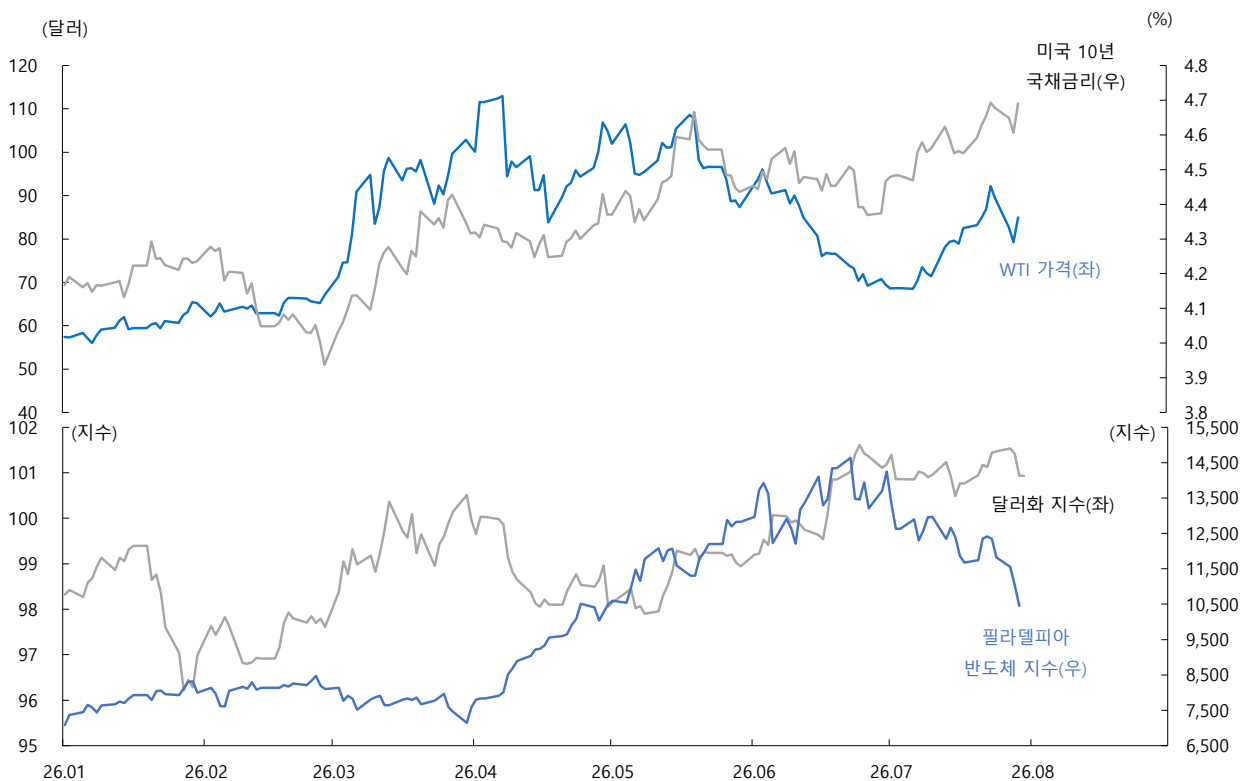
그림1. 7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제각각(7월 29일 기준)

(전일대비 bp, %)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어수선한 금융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가운데 이란 리스크에 유가 안정 여부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변수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